

“당신은 서쪽으로의 집으로 난 먼 길을 불평하고, 나는 동쪽으로 난 끝없는 길에 한숨을 쉰다.”- 해초 (한국의 불교 스님, 6세기)ⁱ

가상 transcendence 시대의 지역성

나의 작은 스튜디오 아파트의 창 밖, 이화 여자 대학교 교정위로 높이, 한강 분지쪽으로 흐르는 도시 풍경이 가파른 경사 아래로 폭포처럼 떨어진다. 녹색과 파란색의 타일로 된 주택지 이웃들은 그들의 고랑안에서 늦은 가을의 잎들을 바느질하며 언덕 아래로 쟁기질한다, 다양한 색깔의 도시 급류들은 인상적인 260미터 탑에 의해 꼭대기에 난 서울 시내의 산, 남산에 보이게된다.

나는 창문으로부터 나의 랩탑 스크린 상에 전시된 지구의 위성사진 이미지로 몸을 향한다. 나는 두 축을 따라 회전하는 구글 글로브ⁱⁱ를 탐색하고, 내가 한반도의 작은 원형을 찾을 때 멈춘다. 나는 가끔 회전하고 이미지에 포장을 씌우고 내 후손의 중심을 재조정하기위해 가끔 멈추면서 줌인한다. 행성의 경계선들은 맨처음에 사라지고, 대륙들은 다음이고, 한국 해변가 그 후에 사라진다. 즉시 그후에 나는 한강의 한강의 바람 형태를 깨닫는다. 도시위로 공중정지하고 남산과 남산타워 위로, 나는 이화여대 언덕들의 덩어리를 감지할 때까지 파랗고 녹색인 타일로된 빌딩들을 가로질러 대충 살펴보며 보이지 않는/가상의 서-북-서 라인을 따라간다. 나는 더 깊이 줌인하여, 대학 운동장과 교회를 지나, 언덕위로, 예대와 법대 건물들을 지나, 마침내 내가 거주하는 건물에 도착하며 탐색한다.

기술의 한계라는 비록 일시적인 현재의 형이상학적인 간섭 때문이라할지라도, 나의 여행은 멈춘다. 또다른 단계와 내가 내자신을 장들을 넘어 나의 작은 방에서 발견하고, 컴퓨터 화면으로 다시 탐구하여, 무한한 순환하는 최고점 아래로 똑바로 떨어졌을지도 모른다.ⁱⁱⁱ

우리의 장소, 한 특정 지역의 경험은 즉시 거리의 아이디어와 묶여진다. 그것은 지리학적이고, 문화적이며, 정신적 또는 감성적 ‘장소’로부터 떨어진 그리고 바깥에 있는 잠재력을 구체화한다. 인간 중심적 개념으로서 Locale(앞으로 장소/현장)은 현재-휴대폰, 에버-쉬프팅 존재-와 지각할 수 있게 정지적인 장소 사이의 공간적 관계를 반영한다.

한 현장에의 관계는 종종 반대 욕망들을 나타낸다—한편으로는, 그것의 경계내에서 위안을 찾기위해, 그것의 내부로 흡수되기를 갈망하고, 다른한편으로는, 그것의 한정영역으로부터 자신을 멀리두기위해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욕구를 말한다. 한 사람의 현장의 경계들을 초월하기위한 열망과 능력은 기본적인 인간의 정신적 능력이다. 플라톤은 Book of Laws^{iv}라는 법관련 책에서 놀이의 기원은 젊은이들이 도약하려는 욕구에 있다고 제안한다. 유사하게, 우리는 창의성의 기원은 도약하려는 정신의 욕구에 있다고 추측할 수도 있다. 창의성은 연습을 할 공간을 요구하고, 또 그것은 “자유로운-놀이”를 요구한다—정해진 경계들 이내에서의 자유의 역설이 그것이다.^v

독일의 현상학자 Hans Georg Gadamer한스 게로르그 가다메르는 언어들 간의 움직임에 그것이 있다고 서술했다.—다시 말하면 그때는 새로운 생각과 의미가 생겨나

는 것이다. 번역은 단일방향의 삼각케도를 처방한다. 말하자면 한 장소이내에서 다른 쪽으로 어울리지 않음으로 “도약하다”는 느낌의 형태로 글을 쓴다. 반면, 해석의 구조와 역동성은 두개의 현장들 간의 상호적인 움직임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것은 곧 두 언어학적 언급사이에서 재표현의 형태를 가진다. 그것은 재표현의 형태를 가지는데 두 언어학적 언급 사이에서 지각적 운동의 과정에서 시작되는 의미이다.

유대인 신비주의에서, Tzimtzum (유대인어에서 “수축”과 “압축”)은 유한하고 독립적인 세계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던 “개념적 공간”에 허락되기위해 신이 그의 무한한 필요조건을 “계약했다”는 창조에서의 까발리스틱 Kabbalistic 이론을 참고했다. 그것은 단지 창조의 신성한 의미가 감추어진 그러한 한 공간 이내에만 물리적 우주

와 자유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vi} Tzimtzum의 개념은 신이 즉시 선험적 일 것을 요구하고, 원인의 이전과 밖의 것과 동시에 널리 퍼짐은 물론, 자연세계를 이기는 내장된 역설을 포함한다. (“신의 영광이 세계를 충만하게하소서”이사이아 (

6:3).^{vii} 더군다나, 정의에의해 신이 본래 어디에나 있음은 물리적 세계에서 거리를 붕괴시키고 또는 보편적인 것의 측면이나 특징들은 각각 그리고 모든 현장에서 발견된다. 다시 말하면, 어디에나 계신 신, 또는 개념 그것으로부터, 역설적으로 지역성과 보편성, 내재성과 초월성을 유지할 수 있다.

만약 의미가 정말로 “현장/장소들” 사이에서의 움직임에 기반을 두고 서술된다면, 어떤 것이든, 결과가 가능할 경우 이런 움직임의 변화를 가져올수 있다—거리 또는 현장의 경계에서 또는 그것의 기저의 동기를 좌절시킴으로써—그 움직임으로부터 우리 능력상 의미를 추려내야하는가?

우리에게 있어 제한된 지구기반의 피조물들은, 장소의 분명한 관념을 유지하는 능력이 최근까지 기본적인 존재적 압박으로 간주되어져왔던 것에 의존했다고 말하여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동시에 한 장소 이상을 차지하는 무력함 같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우리가 물리적 세계의 (두가지 감각에서) 사실적인 확장으로 변환되는 것을 겪을 때,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많은 오래된 법칙들과 강제가 있는 곳에서 한 때에 살고 있다.

현대의 기술적 진보의 한 가지 지구적인 산출은 인간 경험의 다양한 측면에서, 내재된 일시적 그리고 공간적 거리가 극복되어져온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두가지 주제물은 그들 사이의 물리적 거리에 상관없이 소리와 이미지에서 똑 같은 장소를 차지할 수 있다. 즉, 그들은 그 자체의 온라인 확장으로서 봉사하고 경험되는 구체화를 통해 하나의 가상 공간을 공유할 수 있고, 생생한 웹캠과 위성 방송의 지배적 네트워크를 통해 일시적으로 다르고 공간적으로 먼 지역들에서 물리적 공간을 접할 수 있다.

아주 사실적인 감각에서, 현재의 의사소통은 세계를 더 작게 만들어왔다. 그러나 기술이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기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속도를 추구함과 동시에 조차, 그것은 움직임의 바로 그 욕구에 의심을 하고 있다.

훈련의 너른 범위에서—몇몇을 이름짓기 위해 현상학, 심리분석학 또는 형이상학—은 장소와 거리, 경계, 움직임의 부수적인 개념들에 대한 그것의 관계가 의미의 생산을 위한 기초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들의 본질에서의 움직임—그리고 그들의 관계—는 그들로부터 무엇에서든지 의미가 추려내어질 수 있다는 변화에 영향을 주게 되어진다.

현대 의사소통 기술에서 고유의 기만은 인간의 주제가 중앙으로부터의 세계를 차

지하고 통제한다는 것으로, 즉 그나 그녀가 경계의 초월성을 경험하고 즉시 바깥과 내부에서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음의 감각에 접근한다는 것이다. 내방에서 행성의 변두리로 그리고 다시 무한히 내다보고 안팎을 보며 바깥으로부터 나의 응시의 응시에 응시하기까지 나의 응시가 이동함에 따라, 나는 나의 “스스로”에게 자신을 잃음의 위협을 직면한다. 역설적으로, 인류와 장소사이의 관계에서 거리를 극복하고 지방성의 경계를 붕괴시키려는 욕망은 초월의 가능성을 상실한 ‘도약’의 능력의 상실을 말하는 것인지 모른다.

ⁱ 한국 수도승에 의한 중세 시들, 김재현에 의해 소개되고 번역됨 2002년 동양 인문학 출판, 프레몽트, 캘리포니아

ⁱⁱ <http://earth.google.com>

ⁱⁱⁱ 비디오 피드백은 한 비디오 카메라가 그것 자체의 모니터를 가리킬 때 만들어진 다. “복잡한 활성화된 패턴들은 빛[에 의해 생성되고] 그것은 올라가며 장식을 단다. 종종 [이러한 패턴들]은 보통의 분열 도형 형태를 닮는다... 그밖의 어딘가 완벽한 미로가 빈 곳에서 나와 생겨나, 때론 미세한 직선긋기 형태를 지문으로 한다. 많은 발생된 형태들이 자연에서 발견된다—어떤 비디오 피드백 형태들은 미세한-기관 들처럼 보인다... 때때로 그들은 나선형 껍질시와 깊은 공간으로부터의 별무리의 형태를 가진다.”

HYPERLINK "<http://dataisnature.com/?p=186>" <http://dataisnature.com/?p=186>

^{iv} (ii,653)

^v 독일의 첩정석과 고대 히브리어와 동등한 ‘mishak’은 “놀다”와 “자유-놀이”를 모두를 의미한다. 히브리어에서 “mishak”이라는 단어는 그 뿌리가 웃음을 의미하는 “sahak”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놀이, 웃음, 자유는 뗄 수 없는 개념일 뿐만 아니라, 인간 창의성의 바로 그 매개변수로 정의되어 나타난다.

^{vi} Tzimtzum의 기능은 그들의 근원이내에 순전히 무효화되는 대신에 그들이 만질 수 있는 존재로 존재할 수 있게 도우며, 그들 안의 힘을 활성화함을 피조물로부터 감추는 것이다. Tzimtzum은 신의 존재를 직접 인식함이 없으면서 필수적인 “빈 공간”을 만들어냈다 (chalal panui, chalal)

이러한 Tzimtzum의 Kabbalistic 개념의 묘사는 다음으로부터 인용되고 요약된다:

<http://en.wikipedia.org/wiki/Tzimtzum>

^{vii} 랍비식 문학은 종종 신을 Hamakom(“The Place”장소)이라 칭한다. 즉 인간의 신에 대한 종교적 복종은 인간과 그 장소 (ben adam lamakom) 사이에 있는 의무로서 묘사된다.